로컬플러스

익산 송학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점검

올해 지속적인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송학동주민센터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운영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피해 예방법을 홍보했다.

이창현 송학동장외 직원2명은 8월5일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경로당 14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삼가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쉼터 이용과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송민경로당을 이용하던 김모 어르신은 "날씨가 무척 더운데 직접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 상황을 점검해줘 고맙다"고 했다.

이창현 송학동장은 "폭염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인 무더위쉼터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의 여성은 안전한가? - ②성범죄 예방대책과 안전시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아동안전지킴이집 · 여성안전 비상벨 유명무실

성폭행과 관련한 독일의 한 공익광고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남성 성기를 뱀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뒤 피해 여성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평생 그녀의 몸을 기어 다닌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에는 여성의 영혼까지 죽이는 게 성폭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되는 성폭력범죄 건수는 대략 2만 5,000건으로 하루 평균 68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흑산도 학부형 교사 윤간, 제 2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선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 가운데 성범죄를 다룬 뉴스가 상당수다. 이에 본지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성범죄 현주소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관계기관 등 무관심 홍보부족 정책 겉돌아

글 싣는 순서

①성범죄 군산의 현주소
②성범죄 예방대책 및 안전시설 재점검 필요.
③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성폭행의 경우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이 심각한 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 경향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성폭행을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지 가해자의 일탈이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범죄자는 7월 현재 총 193명으로 이 중 군산에는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역에 거주중인 성범죄자 중 80% 정도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일부가 방치된 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이요? 글쎄요"

나운동에 사는 김모(13)양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아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갸우뚱 거렸다.

지난 2008년 4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폭행 등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학교 통학로 주변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음식점, 편의점 등을 어린이 보호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117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아동지킴이 집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아동지킴이 집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들 상당수가 위기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명산동의 한 가게의 경우 폐업한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안내판이 부착돼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여성안전 안심비상벨'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여성안심비상벨은 군산경찰서의 건의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여학교 주변 공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수송 체육공원 등 여성화장실 23개소에 110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일부 비상벨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수송체육공원의 경우 벨 누름 장치가 지난 4월부터 파손되어 있으나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한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32)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성폭행 및 강간 사건에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만 하다"며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볏짚환원 사업 신청 · 접수

익산시는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의 지력회복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볏짚환원(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 소재 농지에 벼를 수확하고 가을갈이를 한 농업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는 올해 벼 재배농지 3,287ha 대상으로 볏짚환원사업을 추진한다.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 한 농가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ha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벼의 생육을 활성화하고 병해충을 방지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화학비료의 절감효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공조체체 유지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 품으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112총력대응 공조체제를 통한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가출인 정신분열증 환자 J씨(26)를 신속히 발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하여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29분경 "조현병이 있는 아들이 가출했다, 빨리 찾아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중앙지구대 한규열 경위와 김현남 순경 및 여청수사팀이 일사분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재빠르게 핸드폰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익산역 광장으로 확인되어 익산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면밀히 수색끝에 역광장에서 기차표를 끊기 위해 대합실쪽 으로 걸어가고 있는 J씨를 발견하고 황등에 있는 모친에게 연락, 안전하게 인계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완주 마음사랑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케 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J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마음사랑병원에서 약 1년 반 동안 입원하고 퇴원한 상태로 금일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기차를 타고 경남 진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익산역으로 가던 중이였던 것이었다.

한편,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신속한 출동 및 112 총력대응으로 가출을 시도한 조현병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톡톡'

맞춤형 급여 적극 홍보 ·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대비 31.3% 증가

군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맞춤형급여 제도란 기존 제도의 일률적 지원이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자의 소득수준, 가구 및 개인별 욕구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윗 단계의 개별선정 기준이 초과해도 다음단계의 보장기준에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맞춤형급여 실시 후 군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해 6월기준 7,153가구 1만1,949명에서 올해 6월 기준 9,389가구 1만4,092명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했다.

이는 맞춤형급여 도입과 함께 중위소득기준 반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이유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하는 시민들의 관심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군산시청 복지지원과(☎454-3143), 주민생활지원과(☎454-3095),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반' 운영

익산시가 9일 제3일반산업단지에 정착한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반'은 공무원과 기업의 1:1 결연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시정사항 등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 등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주얼리 국내복귀기업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처리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책을 통해 중국 등 해외지역에서 장기간 기업경영을 해온 국내복귀기업들의 국내 경영현실과 간극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추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처리반 운영을 통해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맞춤형 시책 발굴을 통해 정착기업과 향후 이전대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보건소, 도시특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호응

군산시보건소가 해신동 보금자리주택 희망루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도시특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희망루아파트는 올해 첫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월 건강행태 전수조사와 4월 사업설명회 및 통합캠페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을 교육받았다. 그동안 보건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에 월명공원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표찰을 제작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희망루아파트에서 산책길을 위한 준비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건강정보 표찰을 제공해 주민 스스로 아파트 단지 내 나무와 월명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길 펜스에 표찰을 다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주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달면서 밝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에 관한 지식을 배움으로써 사업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다.

희망루 주민 황용삼씨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과 적극 참여하여 우리 아파트를 보다 활기찬 건강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기센터, 명품수박학교 수료식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8일 오후 농업인교육관에서 명품수박 재배단지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 명품수박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명품수박학교는 재배단지회원 67개 농가를 대상으로 수박재배기술, 토양 및 양분 관리기술, 병해충관리 기술, 현장기술 컨설팅, 공선출하 의식화교육 등 올 2월 말부터 8월까지 12회에 걸쳐 총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2번째 실시되는 명품수박학교는 이론 강의 40%, 현장컨설팅 60%로 재배농가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뤄졌다.

8일 한국농수산대학 우영희 교수의 농가 현장진단 기자개 기술교육을 마치고 이어진 명품수박학교 수료식에서는 65명이 교육수료증을 받았다.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명품수박학교를 통해 농가들이 수박재배를 하면서 가졌던 애로사항들이 대부분 해결됐다"며 "내년부터는 더 좋은 수박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명품수박학교 교육에 참여한 성당면 김영태(59세)씨는 "그동안 현장에서 칼슘 결핍증, 마그네슘 결핍증, 바이러스 증상 등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 현장컨설팅을 해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좋은 교육을 마련해준 농업기술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 시설수박재배면적은 185ha로 4월 중순 전북에서 첫 출하를 시작으로 6~7월에 씨 없는 수박을 출하 후 연작장해 및 염류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3기작 형태를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익산수박 명품화를 위하여 지난해 명품수박 재배단지 67개 농가 50ha을 조성하여 수박재배하우스에 전열선, 보온덮개, 토양개량제, 자동개폐기, 수박 비파괴 당도선별기 등을 지원한바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성길)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실시된 '2016년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사업에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되어 8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심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전국 305개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었다.

총 2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전라도에서 유일한 선정기관이라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구한 '참여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래집단 이해하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전용시설로 자리 잡도록 기여하고 있는 점이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익산시는 그동안 청소년의 공익실천과 기회균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성숙한 인격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지역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확충

익산시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8월 중 각 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자체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초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65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립감과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약 2억8,000만원의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도록 주문해 302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추가 편성된 일자리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행기관별 사업내용과 모집기간 등의 안내문은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주민등록등본 1통,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와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